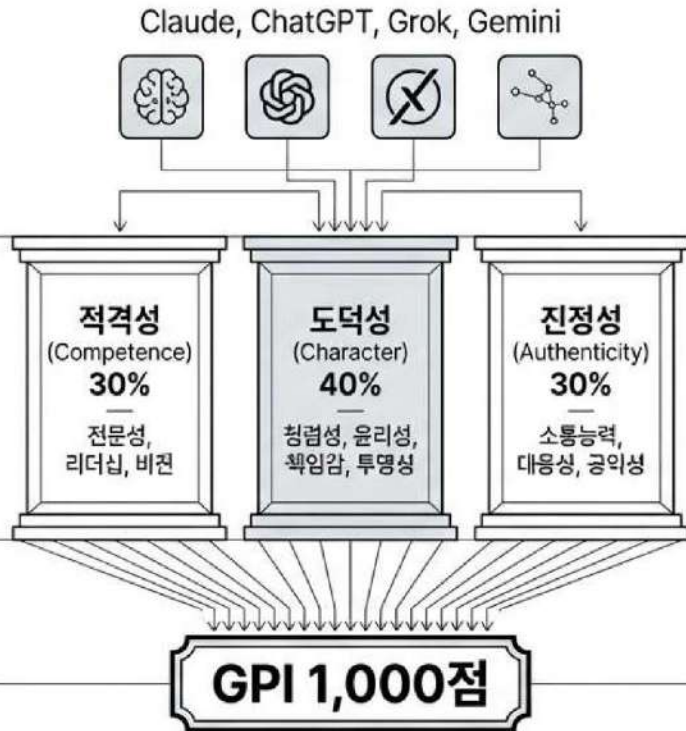


# AI가 분석한 평택시(을) 선거구 리포트: 2026 훌륭한 정치인 지수(GPI)

4대 LLM(Claude, ChatGPT, Grok, Gemini)과  
약 19,000개의 유효 데이터가 그려낸  
5인 후보의 객관적 역량 지형도

DATE: 2026-03-22 | SYSTEM: PoliticianFinder AI 평가 엔진

# AI는 어떻게 정치인을 평가하는가? (GPI 프레임워크)



**합의 알고리즘:** 4개의 독립된 AI가 공식/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4점(최악)부터 +4점(탁월)까지 개별 채점 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신뢰도 필터:** 평가 불가 데이터(X)는 제거하여  
약 73~86%의 높은 유효 데이터 수율(Yield) 확보.



## 평택시(을) 마스터 리더보드: 종합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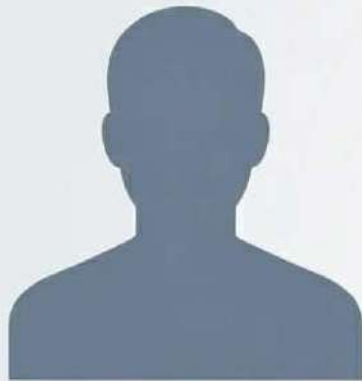
최상위권의 초점전. 1위와 3위의 격차는 불과 37점. 비전과  
공익성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재연, 양향자 후보가 리딩 그룹을 형성함.

# 10대 역량 히트맵: 강점과 치부의 한눈에 보기

	김재연	양향자	유의동	황교안	김용
비전	78	72	76	68	73
전문성	70	72	72	69	60
리더십	75	70	76	67	40
소통능력	63	70	65	64	50
대응성	68	74	72	69	43
공익성	60	73	71	64	43
책임감	67	77	66	67	40
투명성	69	66	63	64	36
청렴성	74	72	67	64	36
윤리성	64	66	64	5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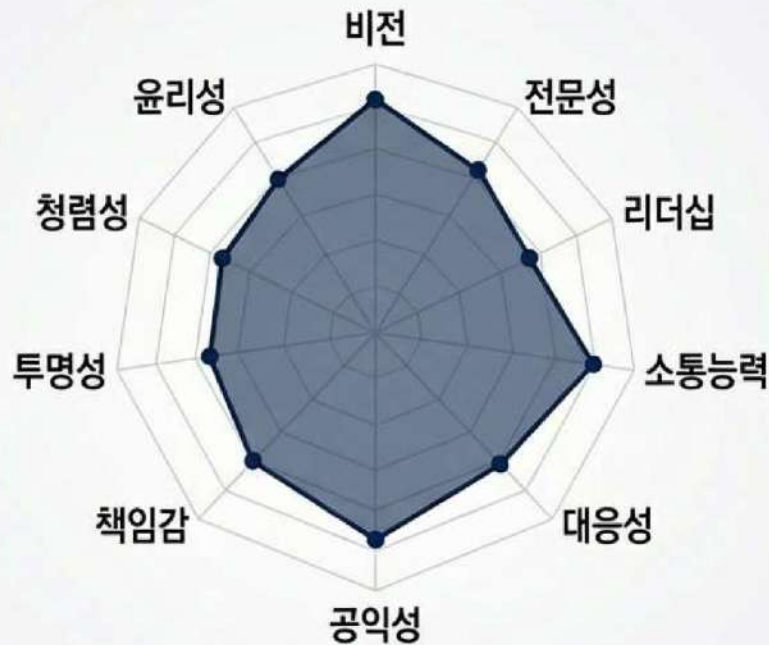
평택시(을) 후보군 전체의  
공통된 약점은 '도덕성'.  
특히 윤리성(Ethics)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유권자의 엄격한 검증이  
예상되는 지점.

# [Candidate Dossier] 1위 김재연 (732점) — 확고한 비전과 소통의 강자



소속: 진보당

경력: 전 제19대 국회의원



## Top 3 강점 ↑↑↑

- 비전 (78점)
- 소통능력 (75점)
- 공익성 (75점)

## Bottom 3 약점 ↓↓↓

- 윤리성 (64점)
- 투명성 (70점)
- 전문성 (7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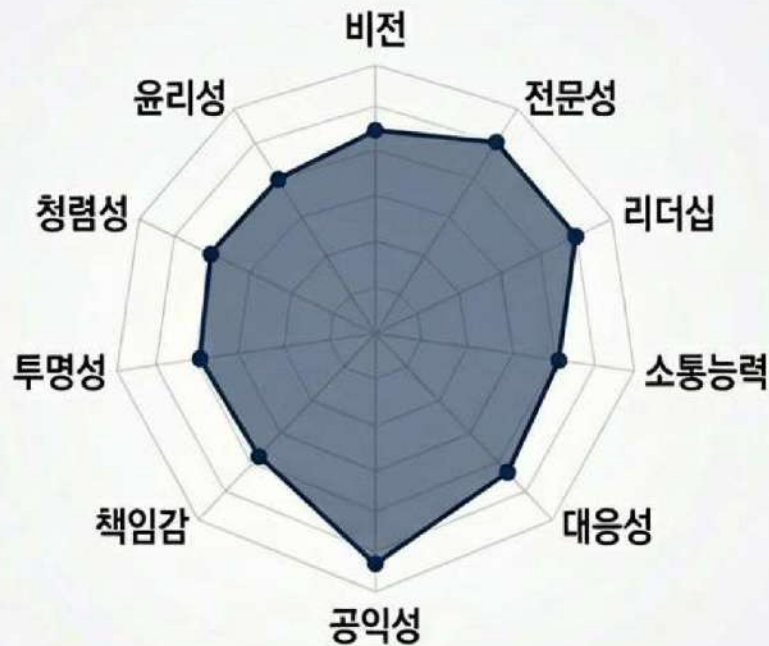
## AI Insight:

10개 중 6개 카테고리에서 74점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안정적인 육각형 스탯을 구축. 긍정 평가 비율이 70.7%에 달하며, AI 모델 간 합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Candidate Dossier] 2위 양향자 (715점) – 공익성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실무형 리더



소속: 국민의힘  
 경력: 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 (고졸 출신 여성 임원)



## Top 3 강점 ↑↑↑

- 공익성 (76점)
- 책임감 (74점)
- 전문성 (7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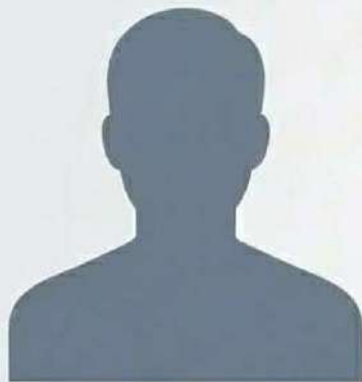
## Bottom 3 약점 ↓↓↓

- 윤리성 (66점)
- 투명성 (68점)
- 소통능력 (70점)

### AI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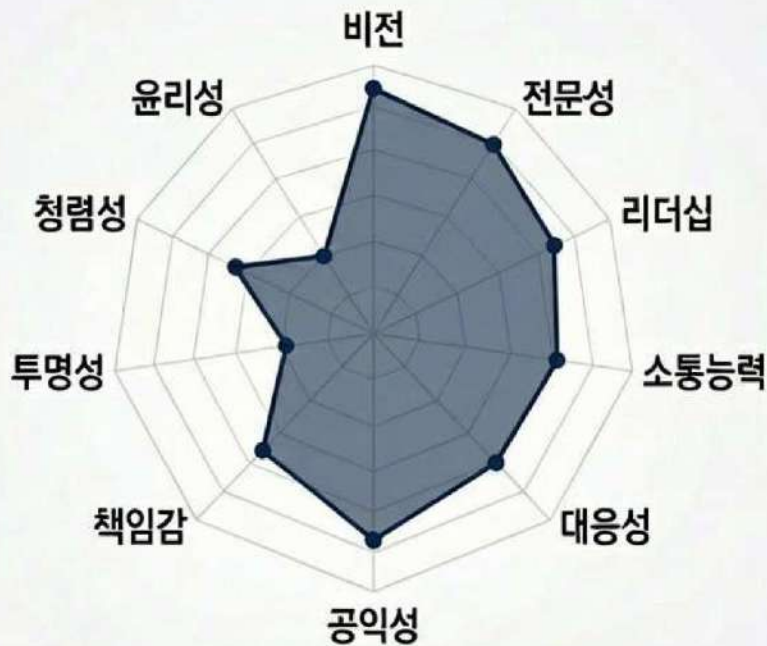
실무 전문성과 공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위에 랭크. 다만, 투명성 지표에서 AI 모델 간 최대 8점의 격차(표준편차 3.9)를 보이며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경향을 보임.

# [Candidate Dossier] 3위 유의동 (695점) – 비전은 탁월하나, 도덕성 검증의 문턱



소속: 국민의힘

경력: 전 제20대 국회의원  
(평택시 을), 이한동  
전 국무총리 비서관



## Top 3 강점 ↑↑↑

- 비전 (76점)
- 전문성 (74점)
- 대응성 (7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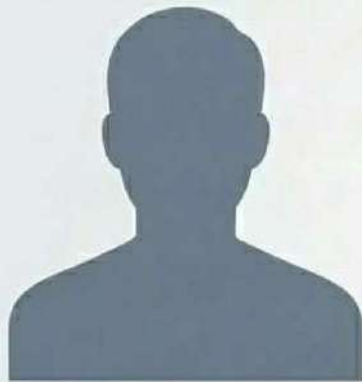
## Bottom 3 약점 ↓↓↓

- 윤리성 (64점)
- 투명성 (65점)
- 청렴성 (6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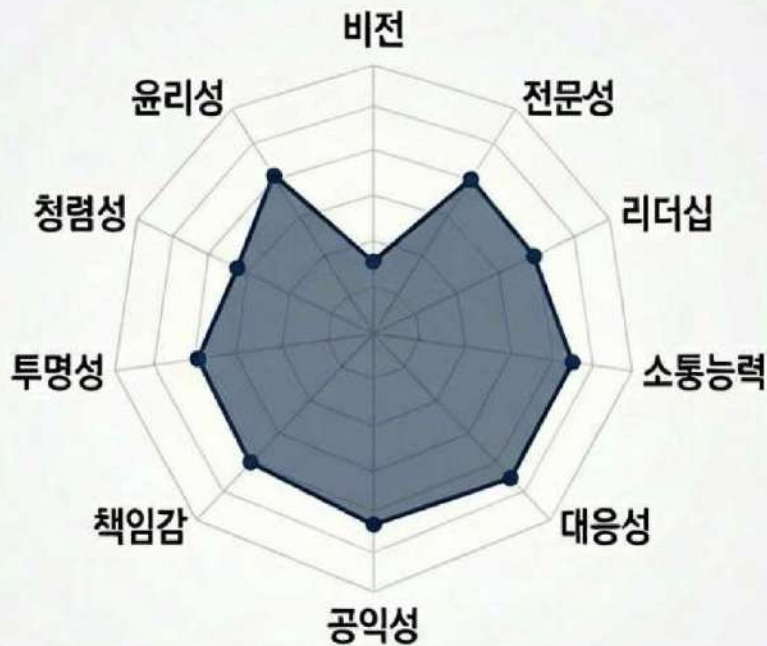
### AI Insight:

적격성(Competence) 축에서는 1위 그룹과 대등한 경쟁력을 보임. 그러나 하위 3개 약점이 모두 도덕성(Character) 카테고리에 집중되어 있어 총점을 깎아내리는 주원인이 됨.

# [Candidate Dossier] 4위 황교안 (651점) – 극명하게 엇갈린 전문성과 윤리성



소속: 자유와혁신  
경력: 전 국무총리  
(제44대)



## Top 3 강점 ↑↑↑

- 전문성 (70점)
- 소통능력 (70점)
- 투명성 (6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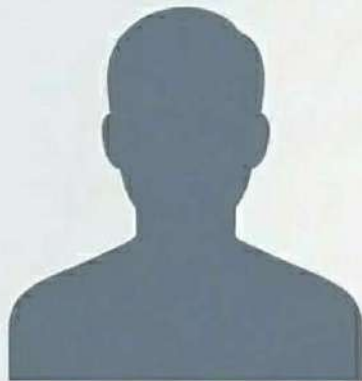
## Bottom 3 약점 ↓↓↓

- 윤리성 (50점)
- 리더십 (62점)
- 청렴성 (6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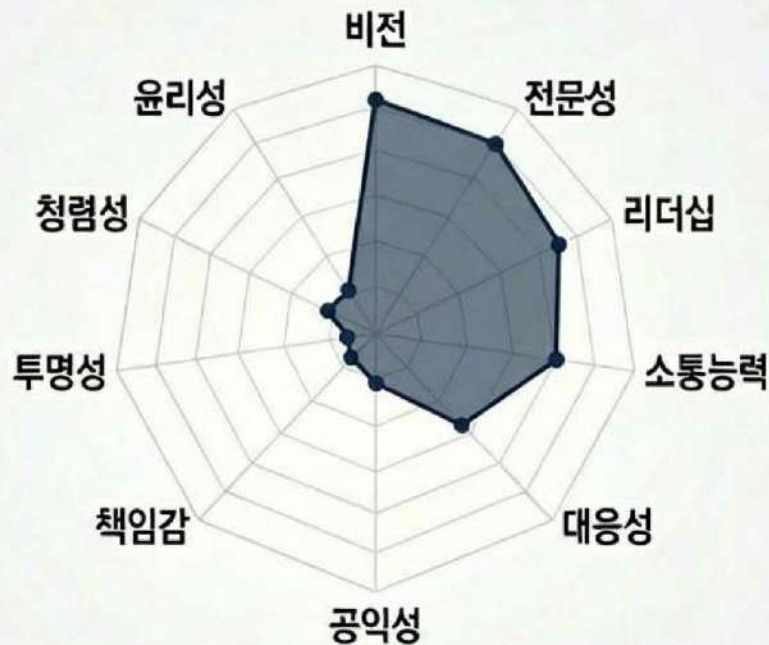
### AI Insight:

국정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70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윤리성 카테고리에서 50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 부정 평가 비율이 51%에 달함.

# [Candidate Dossier] 5위 김용 (572점) — 도덕성 · 지표의 치명적 붕괴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Top 3 강점 ↑↑↑

- 비전 (73점)
- 전문성 (70점)
- 소통능력 (68점)

## Bottom 3 약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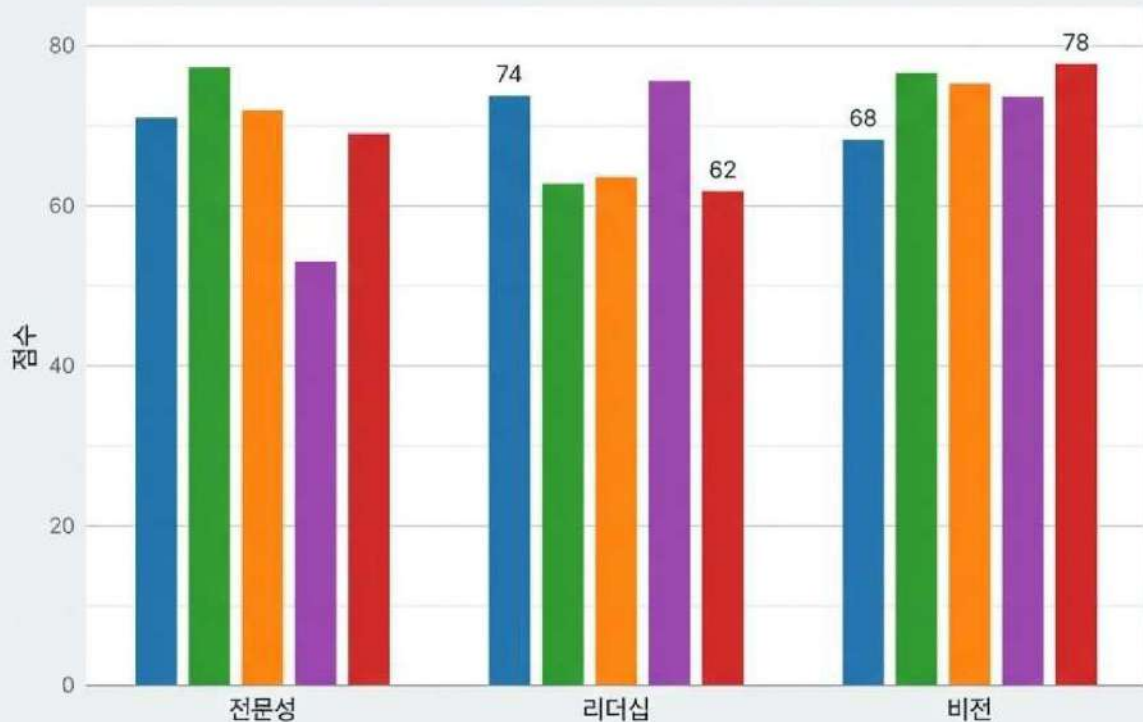
- 청렴성 (36점)
- 윤리성 (44점)
- 투명성 (46점)

### AI Insight:

비전과 전문성 등 업무적 역량은 70점대를 유지했으나, 청렴성(36점)에서 전체 후보 중 최저점을 기록하며 총점이 500점대로 추락. 청렴성 부정 평가 75% 육박.

# 심층 분석

## Axis 1: 적격성 (Competence) — 비전은 상향 평준화, 리더십은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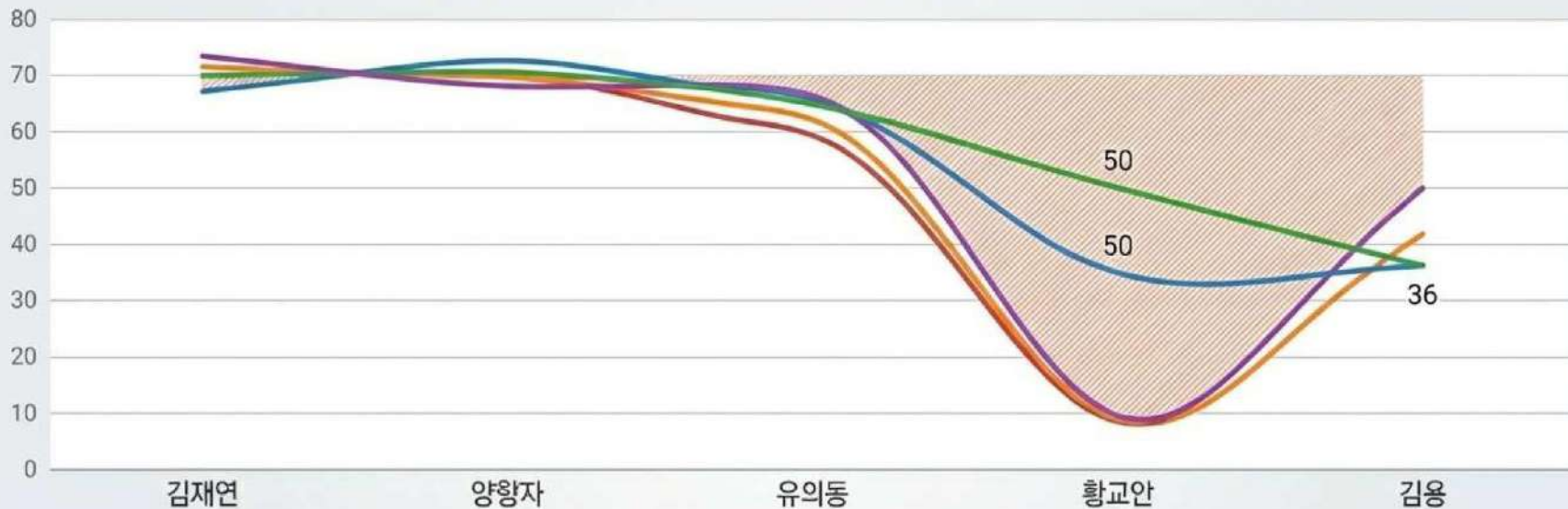


### 인사이트

- 전체 후보가 '비전' 항목에서 자신의 최고 점수를 획득함. 이는 선거 공약에 대한 텍스트가 SI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됨을 의미함.
- 반면 리더십에서는 격차가 벌어짐. 국정 최고위직 경험자의 리더십 지표가 하위권에 머무는 역설적 데이터 발견.

## 심층 분석

### Axis 2: 도덕성 (Character) — 이번 선거의 아킬레스건이자 승부처



김용의 청렴성(36점), 황교안의 윤리성(50점)은 전체 데이터 중 가장 심각한 감점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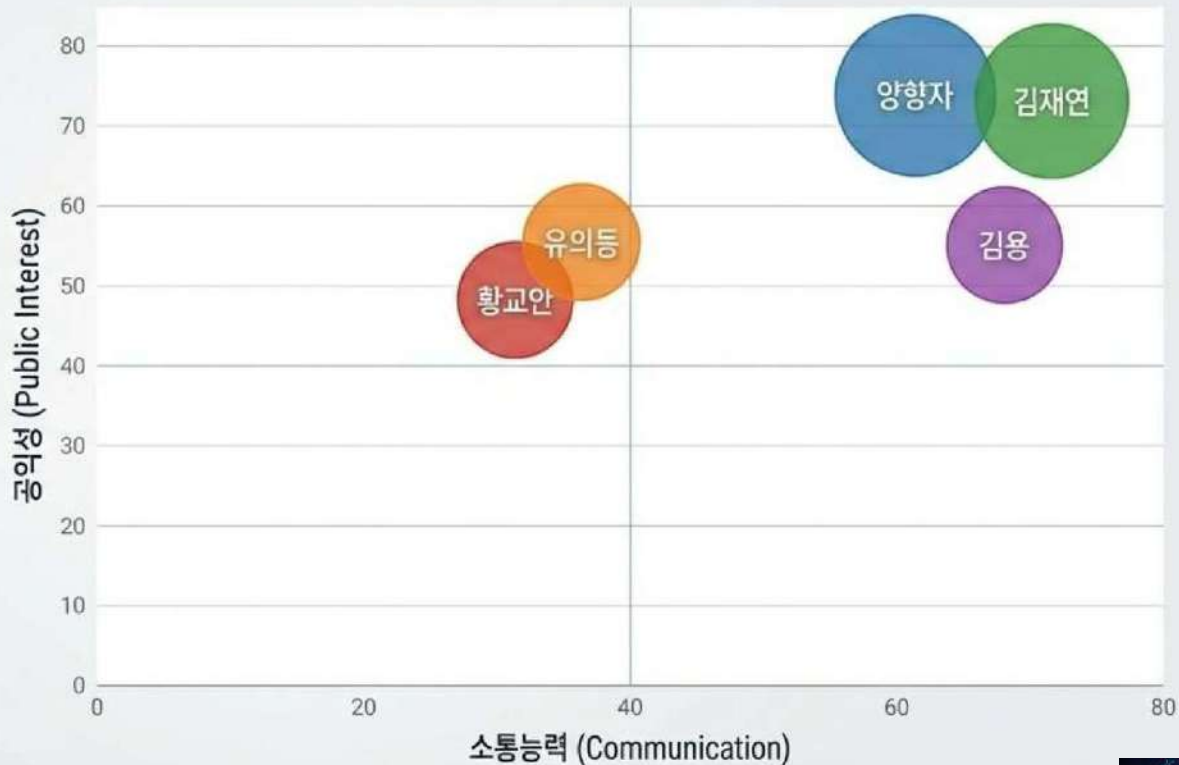
1, 2위 김재연과 양향자는 이 '도덕성 계곡'을 70점대로 무난히 방어해낸 것이 최상위권 안착의 핵심 비결.

## 심층 분석

### Axis 3: 진정성 (Authenticity) — 유권자와의 연결 고리

####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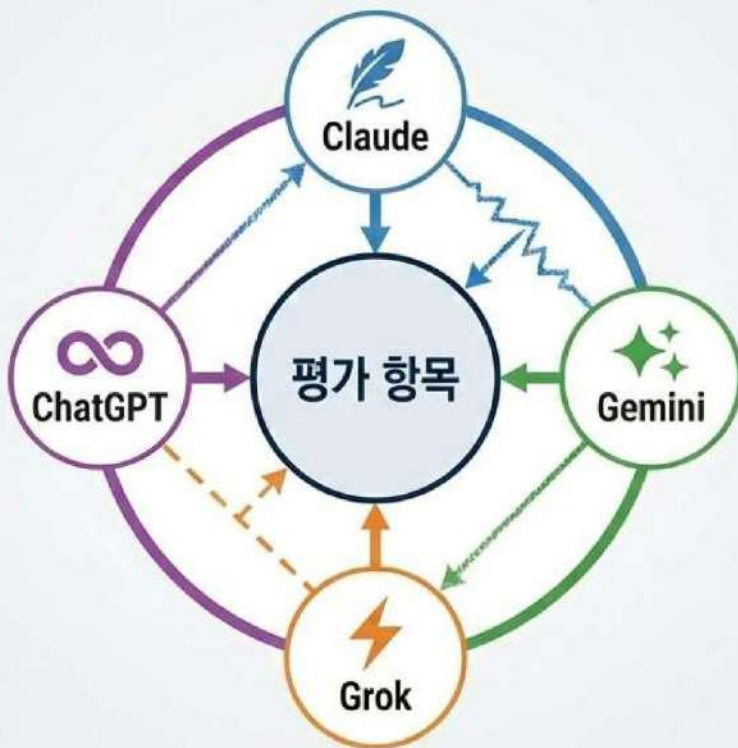
- 공익의 수호자: 양향자 (76점)와 김재연(75점)이 수상단 사분면을 장악하며 압도적 우위.
- 소통의 딜레마: 김용은 소통능력(68점)은 준수하나 공익성(56점)과 대응성(57점)이 낮아, '메시지는 있으나 공익적 실체는 약하다'는 평가 도출.



# AI 블랙박스 해독: 모델들은 어디서 충돌했나?

## AI 성향 분석

- ChatGPT & Gemini:  
도덕성 결함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땀.  
(예: Gemini는 특정  
후보에게 최저점 부여).
- Claude & Grok:  
공약과 비전 등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경향.



## 가장 큰 이견

- Divergence:  
'윤리성'과 '투명성'.  
데이터의 행간을  
읽어야 하는 도덕적  
모호성 영역에서 AI  
간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발생.  
(기계도 도덕적 판단  
앞에서는 논쟁한다).

# 데이터 품질 및 해석의 한계 (Limitations)



##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본 데이터는 시민의 지지율이 아닌, 최근 2~4년간의 공개된 텍스트(기사, 공보물, 회의록 등)에 대한 AI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입니다.



## 맥락적 한계

AI는 평택 지역 특유의 역사적 맥락이나 오프라인에서의 구두 발언, 비공개 활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법적 판단 무관

윤리성/청렴성의 낮은 점수는 온라인상의 데이터 밀집도를 뜻할 뿐, 법적인 유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 최종 결론 (The Final Verdict): 비전의 충돌, 도덕성의 심판



평택시(을) 선거는 출마자 전원이 훌륭한 '미래 청사진(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행적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서 승패가 갈리는 양상입니다. 상위권은 안정적인 역량을 입증했으나, 도덕성 계곡을 완벽히 건넌 후보는 없습니다.

본 GPI 대시보드의 약 1만 9천 개 데이터 포인트는 정답이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강력한 객관적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